

# 전주시민 우울증 해소 위한 선별검사 나선다

### 시, 60세 이상 시민 대상 자기기입식 우울 검사 추진... 점수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달부터 60세 이상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우울 검사를 추진하고, 검사 점수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주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5%이며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전주시민의 우울감 경험률이 13.9%로, 특히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우울증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추진키

로 했다. 검사는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식의 PHQ-9이 사용된다.

이는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우울증 평가도구로, 점수에 따라 △우울 아님 △가벼운 우울 △중간 정도의 우울 △심한 우울로 분류된다.

보건소는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가벼운 우울과 중간 정도의 우울 대상자의 경우 전주 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의 마음치유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특히 심한 우울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집단 프로그램과 진단자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현재까지 총 100건의 우울 검사 결과를 취합했으며, 검사 결과 △우울 아님 69건 △가벼운 우울 20건 △중간 정도의 우울 10건 △심한 우울 1건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대상자의 우울 정도에 따라 마음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

담 서비스 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정신건강 문제, 특히 노년기 우울증의 예방과 조기 발견은 더욱 중요하다"며 "가능한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선별하고,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 검사를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전주시보건소 마음치유센터(063-281-854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기자

# 전주시 드림스타트, 방역 지원

### 해충 방역·주거 위생 교육 등 맞춤형 방역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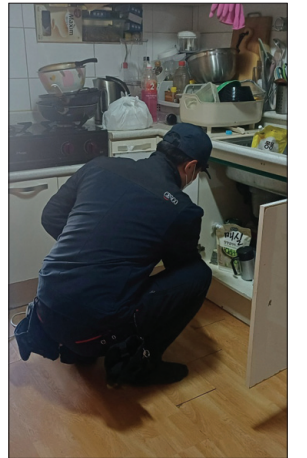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오는 5월 말까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90가정을 대상, '해충방역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정 내 해충 발생과 확산이 염려되지만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체 방역이 어려운 드림스타트 가정을 대상으로 해충퇴치뿐만 아니라, 주거 위생 교육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는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 인해 다가를 무더위와 장마로 유해해충의 확산이 우려되는 9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는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해충방제와 살균소독 등 각 가정환경에 맞는 전문적인 맞춤형 방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드림스타트는 사업 대상 가정이 정기적인 방역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든 저소득층인 점을 고려해 이달 중 한 차례 집중 방역을 시행하고, 오는 5월에 2회차 추가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이 알레르기성질환과 전염성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옥 아동복지과장은 "쾌적한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5월 말까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90가정을 대상으로 '해충방역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주거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 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 전주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목표 달성 위한 컨설팅 제공

### 우선구매율 1% 달성하지 못한 56개 부서 대상 진행

전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율 1% 달성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율 1%를 달성하지 못한 56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컨설팅은 전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맡는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예산 사용계획과 실적분석 △부서 특성에 맞춰 구입할 수 있는 품목분석 △구매계획을 세워 우선구매 가능한 품목 및 구매 방법 등이다.

또한 이번 컨설팅에서는 부서별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품목을 안내

하고, 관련 인식개선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최옥숙 전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은 "전주시는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물 판매행사도 진행하는 등 장애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는 지난 18~20일까지 3일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율 1% 달성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진북동 지사협, 행복동네만들기 밀반찬 나눔 봉사

### 1인가구·독거노인 50세대에 전달

진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미화)는 19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및 독거노인 50세대에 행복동네만들기 밀반찬 나눔 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손수 육개장과 갖가지 밀반찬 등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확인 및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고독사 예방과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장미화 위원장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

을 이웃들이 드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진북동을 행복한 동네로 만들기 위해 우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승기 진북동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열심히 수고해주신 진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계속해서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진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9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등 1인가구 50세대에 행복동네만들기 밀반찬 나눔 봉사를 개최했다.

#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 전주시, 임신 27~36주 이내 임신부 대상 지원

전주시가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임신부의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전주시에 주소를 둔 임신 27~36주 이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Wooping cough)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백일해 독소 등과 같은 다양한 활성물질은 생성해 기도 내 염증을 유발한다.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해 주로 호흡기로 전파되는 백일해는 소아 감염질환 중 전염성이 가장 강한 질환으로, 합병증은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한다.

특히 백일해의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임신 시 모체로부터 면역을 획득하고 주 양육자인 부모의 면역 획득을 통해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부 면역 획득은

모체 항체가 최대인 임신 27~36주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은 매 임신 시 1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산모수첩 등을 구비해 전주시보건소 또는 덕진보건소(063-250-3913)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백일해 백신(Tdap)을 확보하고, 대상자의 백일해 적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최근 백일해 발병이 증가하는 만큼 영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주 양육자의 백일해 예방접종을 통해 영아 감염을 예방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임신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